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1월 19일 (금)
-- (윤력 10월 15일) --
Пятница
19 ноября 2021г.
№ 44 (1196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대회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2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공청회, 2022년 주예산안 긍정적 평가

11월 12일(금) 2022년과 2023년, 2024년의 계획 기간에 사할린주의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도심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다.

지방자치체의 대표들은 화상으로 참석하고, 사할린주의 재정안 논의에 18개 지방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공청회 절차에서 제시된 예산 항목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할 수 있는 투표권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또는 별도의 참가 방식에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공청회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주민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예산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전처럼 정부에게는 모든 사회적 의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조세 잠재력 개발, 투지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성취 과제가 놓여 있다. 제안 논의 과정에서 채택안은 이후 법안 상정에 고려할 예정이다."라고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총재가 밝혔다.

2022년 예산액은 1,26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은 1,163억 루블리, 2024년에는 1,089억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다. 지출액은 2022년에 1,466억 루블리, 2023년에 1,330억 루블리, 2024년에는 1,245억 루블리로 책정되었다.

2022년 예산 부족액은 206억 루블리며,

2023년에 167억 루블리, 2024년에는 156억 루블리가 되는 가운데 예산 부족은 대출을 통해 충당할 전망이다.

사할린주 재정부 장관 올라 로파티나는 향후 3년간 예산은 사회적 방면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가장 최우선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지급하고, 개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금융의 수단을 사용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사회적 분야의 프로그램에 740억 루블리를 책정할 예정이며, 이 중 190억 루블리는 주민의 사회복지에 사용된다."라고 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2022년에는 보건 분야에 226억 루블리가 책정된 가운데 이 자금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4호 보건소의 둘째 병동 건설을 완료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에 상담진료센터 병동을 신축, 달네에 마을에 2호 보건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글레자위드스크, 위스토츠노예, 빠치레치예, 노와야 제레브나 마을들에 조산원과 고라치예 클류치, 코스트롬스코예 마을에 외래환자 진료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는 249억 루블리가 책정돼 노글리키 마을에 학생 300명을 수용할 학교가 건립되며, 키롭스키 마을에 유치원 및 학교, 샤희쵸르스크 마을에 400명을 수용할 초등학교가

건립된다. 주민들의 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40억 루블리 이상이 책정되었고, 교통 제반시설과 도로 경영 개발을 위해 173억 루블리, 이 중 25억 루블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 공항에 새로운 인공 이착륙 지대 건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제반시설 확충의 예산 대출 방식을 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 예산의 지출 규모가 사회적 방면을 유지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교육과 사회복지 지출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와 사할린주 정부와의 공동 과제는 주 예산을 확충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라고 주두마의 위탈리 고밀렙스키 의원이 말했다.

"올해 단지 내 마당 수리에 대한 훌륭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산 적자를 감안하여 이제 대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씩 차차 수리를 하면서 마당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주 예산으로 계속될 겁니다. 우리 지역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라고 공공주택 분야 중년 자원봉사 활동의 담당자인 알료나 실라초와가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구두 및 서면으로 예산 계획에 따른 수십 개의 제안을 제출하여 모든 제안이 채택돼 찬성 144표, 반대 1표의 다수결에 따라 주두마에게 수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단신

사할린주, 연방 기획 '1,000개의 주택가 뜰'에 참여

2022년에는 러시아 연방 예산으로 사할린과 쿠릴에 60개의 주택가 뜰을 정비하고 주 예산으로 63개의 주택가의 뜰을 더 조성할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재정비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700개의 주택가 구역을 뜰이 둘러싸도록 지시했다.

주택가의 대대적인 수리와 공공 장소의 재정비 작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1년에 121개의 주택가 뜰 일부 수리 계획과 작업은 이미 10개 구역에서 완료되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24개 공공 장소를 재정비하며, 12월 말까지 15개의 주택가 뜰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방면의 대대적인 수리 작업은 내년에도 펼쳐지는 가운데 27개의 공공 장소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이 목적으로 사할린 지역이 연방 예산 7천6백만 루블리를 받게 된다. 또한 '1000개의 주택가 뜰' 기획의 일환으로 4억1천8백만 루블리가 배당된다.

2021년 말까지 246명의 고아들에게 사할린주에 주택 제공

올해 고아들에게 아파트 246세대 제공을 계획 중인 현재, 월세 임대 151세대가 제공됐고, 61세대는 총 86% 조성 단계에 있다.

제때 과업 성취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알렉산드롭스키-사할린스키, 노글리키,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들에 지시했다. 연말까지는 모든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올해 고아들에게 거처 제공으로 4억 1,60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고 이 중 큰 부분은 주 예산에서 배당됐다.

사할린주 정부, 관리회사 세설장비 지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해당 업무를 주 주택공사사업부에 내렸다. 일주일 내 이 기관의 전문가들이 특수 장비로 주택공사사업부 사할린 기관의 요청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재정 지원 체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장비 임대나 보조금 지급이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정기 점검 중에 알려졌다.

"올해도 우리는 대대적인 주택가 뜰 정비 작업을 해냈고 다음으로는 주택가 청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관리업체들은 상권이 조성된 구역을 위해 적합한 세설장비를 신속히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에 공공주택사업부가 장비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어도 11월, 12월에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각각의 주택가 재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세설을 위한 독자적 체계도 개발할 전망이며, 이외에도 주택 공공사업 관리업체의 직원들에게 특수 장비 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한민족 씨름이 사할린에서 인기가 많아져

지난 13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대회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에 홈스크 구역, 아니와, 네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선수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 진행은 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이 직접 맡았다. 대회는 연령별, 성별, 체급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승부를 다투었고, 다음에는 13-16세 청소년(7개 체급에서), 16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중에서, 그리고 45세 이상 중년(남성)층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힘겨루기의 흥미로운 경쟁이 펼쳐졌다.

춘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씨름 협회가 설립된 이래 3년 간 다양한 씨름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내 여러 지역의 스포츠학교들에서 씨름 수업을 열어왔다.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 무술, 씨름 보급에 나선 그는 이 보급사업을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한인협회가 추진하는 여러 축제의 부속행사로 씨름대회를 자주 펼치는 가운데 이로써 씨름 보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한인협회가 운영하는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씨름축제는 필수가 되었다.

이날 체급별 13세-16세 청소년 경

기 결과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40kg이하 체급에서 체르니흐 아르쎌, 45kg이하 체급에서 아흐레멘코 블라디슬라브, 55kg이하 체급에서 브류흐 레나트, 65kg이하 체급에서 웨레니킨 알렉세이, 75kg이하 체급에서 춘 키릴 학생이 금메달을 땀다. 특히 체급 75kg 이상 최종 결승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둔 황 무슬란의 승부욕은 남달랐다.

이번 대회에 6명의 여성(16세 이상)이 참가했는데 모두가 네웰스크시를 대표했다. 이 중 류브치노와 예브게니야가 우승했고 16세 이상 남성 중에서는 류블린 아르쎌, 중년층에서는 박 드미트리야가 승리했다.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임 유리 <메가팔라스>호텔 부사장 등이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메달과 상장, 부상품을 시상하고, 그외에도 우승자들에게는 황소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날 <에트노스>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우아한 무용무대와 신나는 타악기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사할린 선수들이 점점 씨름 기술을 익히고, 한민족 씨름이 다른 민족들과 사할린에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자신을 발휘하라' 예술축제 경연 결승에 31개 댄스 올라

제11회 '자신을 발휘하라' 예술축제 경연 '가무 예술' 종목의 예선이 '로지나' 시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14세부터 35세까지 연령의 무용수들 100여 명이 예술축제 결선에서 겨루기 위해 40개 이상의 작품을 펼쳐보였다.

예선에서 무용수들이 고전부터 현대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용을 선보인 가운데 오는 11월 20일(토) 15시 '로지나' 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결선에는 31개의 댄스가 오른다. 심사위원들은 예술적 관점으로 참가자들의 연출 기술과 독창성 전달, 다른 표준들에 따라 각각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청년주도센터가 전했다.

В финал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ал 31 танцевальный номер

Отборочный тур 11-го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в направлени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остоялся в городск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11 ноября.

Около 100 танцор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показали более 40 номеров, чтобы побороться за место в финале арт-фестиваля. На отборочном тур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танцев: от классических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В финал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редстоящую субботу, 20 ноября, в 15:00 в ДК "Родин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31 танцевальный номер.

Оценить каждый по 10-балльной шкале предстоит членам жюри. Они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ртистизма, техники исполнения, оригинальности подачи и других критерие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ЦМИ.

사할린의 청소년 화가들 '환상의 섬'의 미를 방문객들에게 보이다

11월 1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미술학교에서 '환상의 섬' 미술대회가 시작되었다.

홈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네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7개 교육기관의 청소년 화가들이 다양한 양식

과 기법으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올해 미술대회의 주제는 '민속 예술과 국민 문화유산'이다. 참가자들은 '순수 미술(그래픽과 회화 기법)', '장식공예 미술(그래픽, 회화, 어플리케, 콜라주, 염색공예, 그라타주) 부문에서 170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했다.

추가로 10세에서 18세까지의 참가자들은 정물화 장르에서 작품을 제출했다. 청소년들의 미술 솜씨를 러시아 화가 연맹 사할린 지부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 - 니나 나우모와, 알렉산드르 부리카, 나탈리아 크루샤노와, 사할린 미술전문대학 디자인 및 미술학교장 조성용 -이 평가했다. 심사위원 대표로는 러시아 화가연맹 회원인 나제즈다 트로예구보와가 나섰다.

미술대회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는 전시회, 2차는 1차에서 선정된 30명의 참가자들이 직접 경연에 참가하는데 참가권을 얻은 참가자들은 그림을 위한 재료를 선택해 단순한 형태 또는 복잡한 형태 2-4개의 물체 중에 자연 정물화를 그리는 경연 과제를 성취해야 한다.

Юные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а показывают гостям «Остров фантазий»

В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2 ноября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тров фантазий». Юные художники из се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Холмска,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Невельска 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казывают свое видение мира в разных образах и техниках.

Темой конкурса в этом году объявили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и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170 работ в номинациях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графической или живописной техниках)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графика, живопись, аппликация, коллаж, батик, воскография). Участники от 10 до 18 л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ы в жанре «Живописный натюрморт».

Мастерство юных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ва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Нина Наумова, Александр Бурька, Наталия Крушанова, завкафедр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дисциплин и дизайне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Дё Сон Е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выступила член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Надежда Троегубова.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этап — выставка, второй — очный этап, куда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не более 30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нты, получившие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выполняют конкурсное задание — натюрморт с натурой из 2-4 предметов простой формы и сложной формы с помощью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живописи на выбор.

사할린 주민들, 지리학 디탄트에 참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지리학 디탄트(단답시험)에서 자신의 지식을 점검했다.

시험은 오프라인 형태로 이뤄졌으나 활동의 제한을 고려했다. 올해 행사에 100명이 참가하여 주최 측은 디탄트 행사로서는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인해 참가자 수를 제한해야 했는데 행사장에는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지리학 디탄트는 문제를 출제하는 러시아 지리학 단체의 아이디어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출제된 문제들은 더 어렵고도 흥미로웠다고 참가자들은 말한다.

한 고정 참가자인 알렉산드르 이웰스키는 "저는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바로 지리학과를 전공해서 항상 자신의 지식을 검토하는 데 유익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출제된 문제를 읽을 때 저로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든요. 흥미로운 경험입니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는 디탄트에 앞서 진행됐던 '브레인 배틀(두뇌 싸움)' 수상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각 문제마다 30초에서 1분까지 주어졌고 주요 부분은 다음에 시작되었다.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 학술단체의 회장인 림 예고르는 "오늘 행사장에 대학생들을 비롯해 고령의 세대들도 참가하신 것을 보니 참 좋습니다. 게다가 고정 참가자들도 계속해서 항상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모든 답안지는 검토해서 검사를 위해 러시아 지리학 단체로 보내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지리학 디탄트 끝날 때 모든 참가자들에게 증명서를 전달했고, 시험 결과는 며칠 후에 발표된다.

(8면에 계속)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안내》

본국에서 2022.3.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는 2022.02.23.(수)~2022.02.28.(월)간 실시 예정이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기간은 2021.10.10 ~ 2022.01.08.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 **출장소를 방문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제출 또는 ▲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접속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신청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 '재외선거신고신청' 클릭 → 성명·여권번호·주소 등을 입력, 신청 완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사할린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국외부재자 신청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사할린 월레포럼: 마카로브 한인사를 주제로

지구촌동포연대(KIN)와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할린 월레포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사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아픈 역사를 다룬 이번 월레포럼의 주제는 <마카로브 한인 -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 책을 중심으로 한 마카로브 한인사다. 포럼은 11월 21일(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정오 12시) 시작한다.

포럼에서는 '마카로브 한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북방의 얼'의 저자인 사할린 역사학자 니콜라이 비시넵스키가 마카로브 한인 역사에 대해 강연하고 그 전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선영 씨가 간략하게 책을 소개할 것이다. 출판 계기와 현지 반응,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장, 학술적 의의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사할린 연구가 진 율리아 박사, 역사

연구 및 유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 문답, 자유발언 및 제언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사할린 한인 관계자들은 이날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모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포럼은 zoom을 통해 하고, 동시에 유튜브 <https://youtu.be/p5-tw2rdCBI>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신PD의 K 리포트]

2년과 80년

"아들아 이번 별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잉~"



작년 추석 '전남 완도 군민 일동' 명의로 시내에 걸린 현수막 글귀입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명절 풍경을 웃프게 (웃기면서도 슬프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화제가 됐던 몇가지를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안와도 된데이 ~'

'불효자는 읍니다' ('읍니다'가 아니라)

"삼촌! 이번 별초 때는 내려오지 마세요!"(제주도 서귀포시청이 SNS에 올린 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오고가는 발걸음을 확 줄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추석, 설 명절 때가 되면 10시간 가까운 고된 운전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 계산 부모님, 친지 찾아뵙던 일상의 행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벌써 2년 가까운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여행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자료 중에 러시아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 통계를 보니 그 심각함이 깊이 와닿습니다. 2019년에 약 34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첫해인 2020년에 7만3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9월까지의 누계를 보니 고작 2만3천여 명이 러시아를 출발해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올해 그 숫자는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전보다 좀 편하게 고국 땅을 오고가게 되려나 하셨을텐데, 코로나 때문에 생길 일들로 걱정과 아쉬움이 큼니다.

사할린 동포분들이 낯선 타국으로 끌려가 고향 가족들 소식을 한 줄이라도 들을까 애쓴 세월이 80년이 넘어갑니다. 인편으로 옛 주소를 적어보내 끊어진 연락을 이어보려고 했고, KBS 한민족방송 (예전에는 '사회교육방송'이라고 했죠)에 편지를 보내 채택되면 고향 가족들 중 누구라도 듣고 회신을 해올까 기대하며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던 세월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왔습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 그리고 추석, 우리는 이렇게 겨우 세번의 명절을 고향에 못가서 속상해하는데, 사할린 동포분들의 80년 넘는 세월과 비교하면 부끄러워집니다. 핸드폰으로 금방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화상통화로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할린동포분들이 겪은 이산(離散)의 세월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올해 KBS 라디오 <한민족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을 받은 사할린 동포 박영자 선생님의 수기 '3대에 걸친 약속'에는 이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할린으로 끌려간 후 다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가족사를 눈물 꼭 삼키며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늘 듣던 라디오에서 아버지 박정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취해... '라는 구절을 읽으며, 치지직거리는 단파 방송에 아주 잠깐 나왔을 '박정환' 이름 세글자가 박영자 선생님 부모님께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KBS에서 일하는 보람과 또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박영자 선생님 말고도, 한인 4세대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가족사를 사진자료와 함께 영상작품으로 잘 만들어 출품한 주코스타가 한민족상을,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사할린 출신의 사프로노브 안드레이 학생이 <나의 꿈>으로 청소년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사할린 아리랑축제 추진단 기미양 단장님께는 공로상으로 KBS와 고국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KBS 한민족체험수기>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한민족 동포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KBS 라디오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기밀 해제된 미즈호 사건 기록 사할린 향토박물관에 전달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일본의 사할린 섬 통치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남부 사할린의 탄광과 산업체들에서 노동을 시키고자 강제로 한인을 동원했던 사실이나 가족의 이산, 불가능해진 귀환, 그 이외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일제 말기(1945년 8월)에 붉은 군대가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해방할 무렵에 일어난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 사건도 이러한 비극에 속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잔혹함과 평화로운 한인 주민들 가운데 발생한 의식되지 못한 희생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들은 여전히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사할린 지역 박물관 학술자료실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맞으며 지난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밀 해제된 일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가 접수되었다. 1945년 8월 남사할린 전역으로 소련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전에 미즈호(현재의 포자르스쿠에 촌)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한인 주민의 학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었다. 문서의 기밀 해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미 우리가 보도한 바 있는 2021년 9월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포럼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도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 법령에 의거한 문서 공개 연한 경과(75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입수된 기록에는 1946년에 작성된 수사 대상자들의 심문 녹취록,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연구자들은 1945년 사건의 사실들을 확실히 연구할 수 없었다. '미즈호 마을의 비극'은 실제 기록과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허구적 소설이다. 책에 묘사된 특정 플롯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저자가 고심했던 평화와 이상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내고자 발명한 산물인지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린 시절의 전쟁과 점령의 공포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교사이자 작가이며 민족지학자이기도 한 콘스탄틴 가포넨코 선생은 위대한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자신의 모든 책에서 고귀한 이상들을 전했다. 즉 전쟁은 거부되어야 하고, 내부적 이유나 다른 모든 근거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의 갈등은 수용되어선 안되며 평화로운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들이 1945년 사할린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명하는 일을 막고 있기도 하다.

본격적인 사료가 들어온 만큼 이제 역사가들은 정통한 사료에 근거하여 미즈호 사건을 연구할 수 있고 향후 1945년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저작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거짓된 시도에 저항하는 주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부장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 (사진: 주향토박물관 제공)

1945년 8월의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사할린의 저명한 작가이자 향토사가인 콘스탄틴 예피모비치 카포넨코(1933-2019)의 책 덕분에 사할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의 책 '미즈호 마을의 비극'은 1992년에 출판되고 2012년에 다시 발행되었다. 책이 갖는 의의할 여지없는 업적은 우리들이 끔찍한 소문과 소비에트 시대의 모호한 조각 기록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실화를 예술적 형태로 구현했다는 데 있다. 2015년에 콘스탄틴 가포넨코 선생은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한국 여성 김경순씨가 사할린을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필자에게 밝혔다. 김경순씨는 가미시카(현재의 레오니도보) 사건 당시 일본 헌병에게 사살된 아버지와 오빠를 찾고 있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심과 기록보존소 혁명(연구자들에게 러시아 기록을 개방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사할린 사회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콘스탄틴 가포넨코의 업적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역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ереехал на Арбат

Москва, 12 ноября — Лана Тянь,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А РУСКОР

По сообщ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12 но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его нового помещения.



Площад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здании на Арбате,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города Москвы, приобретены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омещ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й площадью 2,600м2) просторнее предыдущего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и занимает 3 и 4 этажи четырех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ресепшн,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киноконцертный зал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300 мест, выставочные залы, кулинарный класс,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омната и библиотека. На четвертом этаж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и помещ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курсов Института Сечжон, а также офис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Дизайн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был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 в стил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дома «ханок» в современ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чтобы посетител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ли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корейск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здани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1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стюмы «ханбок»,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традиционный дом «ханок», традицион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ерамика и другое. На широкоформатном LED-экран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Кореи.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здани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откладывалась. Сегодня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при участи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Сок Пэ,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хаила Швыдкого,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К открытию приурочены выставка медиа-арта «Корея в трехмерном воображении» и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мастера Кан Бён Ина «Цветок хангыля, распустившийся в Москве», а также други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Ежегодно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роводит более 50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ного формат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правление онлайн мероприятий. В 2021 году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Fest 2021», показ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выставка вебтунов, показы корейского и российск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нкурсы к-поп,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й живописи минхва и видеорецепты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Ежегодно сайт центра набирает более 200 тысяч просмотров, 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узнать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центра могут более 210 тысяч подписчиков.

13 ноябр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сцене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стоялся Гала-концерт,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овместно с Мариинским театром в рамках Го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борьбе ссирым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иуроченные к 15-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Свыше 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боролись за медали.

Медлить в схватке спортсменам шанса не дают. У них есть лишь три раунда по одной минуте в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определится победитель.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повалить соперника, а любое касание настила означает поражение.

Поединки прошли среди детей до 12 лет, юношей от 13 до 16 лет в семи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а также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старше 16 лет. Самой старшей категорией спортсменов стали мужчины старше 45 лет.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юношей 13-16 лет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40 кг лидером стал Артём Чёрных. В весе до 45 кг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 Владислав Ахременко. Спортсмен Ренат Брюх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среди соперников весом до 55 кг. Сильнейшим среди борцов до 65 кг стал Алексей Вереникин, а в весе до 75 кг золото взял Кирилл Чун.

Особенно зрелищной стала схватка участников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выше 75 кг, здесь нелегкая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Руслану Фану.

— Максим Тарасюк очень достойный противник, с ним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ресно бороться. Победа далась не без сложностей, но это все-таки спорт, который бывает травматичным, — подчеркнул спортсмен.

Среди женщин старше 16 лет золото досталось Евгении Любчиновой, среди мужчин этой же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 Артемом Люблиным, а среди мужчин старше 45 лет не было равных Дмитрию Паку.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о трагедии в Мидзухо переданы в музей

Дл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ю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связанные с японским периодом правления островом. К этому периоду относятся факт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для работы на шахтах 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разделения семей, не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и другие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К концу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август 1945 г.), когд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свобождала от японцев Красная Армия, относятся и трагедии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Однак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тде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жестокости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и бессмысленности жертв из числа мир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оставались в тени.

Науч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н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просной работы на фоне 75-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лучил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японцев, которые в августе 1945 г., до приход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совершили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ныне село Пожарское). Важную роль в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я о рассекречив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сыграл прошедший в г. Хабаровске в сентябре 2021 г. форум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вызовы», о котором мы уже писали ранее, а также истечение сроков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указа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по российск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75 лет). Полу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протоколы допросов подсудимых, обвинительные заключения и приговоры преступникам, датированные 1946 г.

События массового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в августе 1945 г. известны сахалинцам благодаря книге краеведа, извест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онстантина Ерофеевича Гапоненко (1933–2019). Книга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вышла в свет в 1992 г. и была переиздана в 2012 г. Ее несомненная заслуга состоит в воплощении в художествен-

ной форме реального образа того, что мы знали только по страшным слухам и неясным обмолвкам совет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ам Константин Ерофеевич в 2015 г. сообщил автору в личной беседе, что он узнал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во время приезда кореянки Ким Гёнсун. Она искала отца и брат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расстрелянных японскими жандармами во время событий в Камисиска (Леонидово). Тогда общественный интерес к подобным событиям и начинавшаяся архивная революция (открытие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позволили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ществу узнать о тех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ях.

Несмотря на чрезвычайную важность труда К.Е. Гапоненко, ученые-историки не могли достоверно изучать факты событий 1945 г.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оман, пусть и основанный на ре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и событиях. Невозможно выявить, какие сюжеты, описанные в книг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лучились, а какие являются плодом вымысла автора для созд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артины мира и тех идей, которые его волновали. Педагог, писатель и краевед, переживший в детстве ужасы войны и оккупации, Константин Ерофеевич, продолжая традиции велик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о всех своих книгах транслировал благородные идеи — неприятие войны,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конфликтов на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либо любой другой почв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семи силами бороться за мирную жизнь. Но эти же идеи мешают нам сейчас выяснить детали те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имел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1945 г. такое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торики на основе подли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смогут изучить события в Мидзухо и создать в будущем полноц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труд о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1945 г., который выступит аргументом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попыткам фальсификац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Юлия Дин, зав.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 шаг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Предложенное Сеулом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станет шагом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хве Чжон Гон, выступая 15 ноября на форуме в Вашингтоне, которы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и Центр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может быть долгим, трудным и даже мучительным»,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структуру, «от которой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легко уйти», - добавил Чхве Чжон Гон,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убедить Пхеньян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оможет верну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стол диалог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здав «необратимый» процесс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о станет важной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двух Корей и СШ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го порядка, открыв площадку для диалога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мир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 сказал Чхве Чжон Гон.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евратит «ненормально долгое перемирие в режим мира», - добавил он.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рибыл в Вашингтон 14 ноября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воей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ллегой Уэнди Шерман.

В РК сокращён интервал между вакцинацией и ревакцинацией против COVID-19

В попытке сдержать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и количества тяжёлых пацие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сократить интервал между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вакцинацией и ревакцинацией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тив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7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Жители страны старше 60 лет могут быть ревакцинированы через четыре месяца, а старше 50 лет – через пя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ервичной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вакцинации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антивирусная защита, которую предоставили первичные прививки, со временем ослабева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вакцинация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последней дозы вакцины. Поскольку в стране постоянно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более 500 тяжёлых случаев COVID-19, необходимо защитит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этой связи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ут ревакцинированы 13 млн 780 тыс. человек, - отметил Ким Бу Гём.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на людей старше 60 лет приходится 82% тяжёлых случаев и 97% смертей от COVID-19.

В Тэгу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10 ноябр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музее «Хиум» в городе Тэгу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там представлены материалы 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жизни и лишениях пострадавших женщин. Выставка состоит из трёх разделов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Её посетителям доступ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фотографии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о событиях того времени. Благодаря технологии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нестись в ту эпоху, когда происходили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 Можно воочию увидеть предметы, являвшиеся частью быта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осет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места, в которых им приходилось быва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также привлекает контент, позволяющий посетителям выставки пообщаться с жертвами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Возможно также посещение онлайн выставки, доступн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В РК впервые за шесть лет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иса

В РК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иса. Как сообщили 15 но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собрано 3 млн 880 тыс. тонн риса, что на 10,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был достигнут рекордный минимум.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условлен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погодными условиями с июля по октябрь, такими как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лнечных дней и меньше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осадков. Ещё одна причина - увеличение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ей. Совокупный размер рисовых полей увеличился на 0,8%, составив 732.477 гектаров. Рис считается основным продуктом питания корейцев, но его потребление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неуклонно снижа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из-за изменений в диете и пищевых привычках. Среднегодовое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2020 году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 57 кг 700 г.

(RKI)

Южная Корея попросила Россию помочь решить угрожающий экономике кризис

Южная Корея внезапно столкнулась с нехваткой жидкого реагента AdBlue,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мого в технике с дизельными двигателями. Если вопрос не будет решен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то в стране могут начать вставать машин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грузовики, стро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В этой связи Сеул экстренно ищет новых поставщиков продукта, где одним из возможных вариантов является Россия. Ряд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политиков Южной Кореи обратились к Москве за помощью, прося срочно начать поставки сырья.

Корейцев сложно заподозрить в любви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лично копаясь под капотом своего автомобиля, потому про AdBlue в Южной Корее еще неделю назад знали только те, у кого машины оснащены дизельными двигателями и требуют данную добавку. Этот жидкий реагент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чистки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дизельных двигателей,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ая выбросы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в атмосферу. Однако теперь про AdBlue или смесь мочевины и деминерализованной воды знает в Корее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Этот реагент вот уже который день фигурирует в заголовках главных новостей и, как оказалось, без него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очень нелегко.

Южная Корея все свои потребности в этом реагенте решал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а счет импорта из Китая. Так,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более 90 процентов ввоза AdBlue или сырья (мочевина) для него пришлось на Поднебесную. Но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КНР сам столкнулся с дефицитом угля, из которого производят более трех четвертей всей мочевины, а потому начались перебои с поставками, что очень быстро почувствовала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гнозы пока неутешительные для корейцев: Китай наращивает добычу угля, но не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потребностей экспортеров, 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своих нужд, например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 теплоэлектростанциях при выработке электричества.

В этой связи в Корее сейчас бьют тревогу. На пару недель запасы есть, но потом может начать вставать техника, которой для работы нужен AdBlue, а это грузовики, бульдозеры, экскаваторы и даже частные автомобили с дизельными двигателями. Кроме того, более 8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пожар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машин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стране также требуют этот реагент. Все это грозит по цепочке парализовать всю экономику, когда кризис в одной сфере начн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другие области. Например,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нехватке бензовозов, которые также требуют раствор мочевины для своих двигателей. А если не будут нормально ездить эти машины, то начнутся проблемы уже на автозаправках.

Рынок отреагировал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на дефицит. Стоимость AdBlue взлетела в 3-4 раза за неделю, но даже по этим ценам часто реагента просто нет.

В руковод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все не радуж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а потому отреагировали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создали специальную группу по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заработал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ая ищет пути выхода из кризиса. Воен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и, что переда-

дут на нужды гражданской экономики часть своих запасов, власти начали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придержать запасы AdBlue, ожида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цен, приняты и другие меры.

Хотя есть те, кто пытается заработать на кризисе, но дефицит спровоцировал и волну общественной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Обычные корейцы, у кого есть AdBlue, стали привозить к зданиям подразделений Службы спасения, пожарным, гаражам скорой помощи канистры с реагентом и оставлять их в качестве безвозмездного дара, чтобы хоть эти машины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сегда выехать, а потому простые люди пытаются помочь - кто чем мож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умело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экстренных поставках с Вьетнамом, Австралией, но объемы пока слишком малые.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понимают, что все эти меры носят време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нацелены лишь на то, чтобы выиграть хоть сколько-нибудь времени. Главный пу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есть только один - найти новых зарубежных поставщиков, не надеясь только на Китай, тоталь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которого сыграла с корейцами злую шутку.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с десятками компаний из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собые надежды также возлагают на Россию, к которой напрямую обратились о помощ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з-за введенных Китаем ограничений все наши грузовики могут остановиться, - заявил, выступая на 3-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 форум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Ён Гиль. - В этой связи нам крайне важно налад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Мы крайне нуждаемся в помощ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заявил политик, обращаясь к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подтверди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ив за последние дни, что Россия - в списке тех стран, кого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 качеств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сырья для AdBlue.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этого кризиса является наша чрезмер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од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 Китая. В связи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продолжения действия ограничений, введенных КНР,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о изучить вопрос о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поставщиков, включив в эту сеть Россию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 говори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м заявлении главы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ин Хён Ёна. В партии же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обратя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решение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задействовав свои каналы общ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Как известно, тот же глава партии Сон Ён Гиль ранее часто посещал РФ, имеет там много друзей и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тречался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который в 2013 г. наградил Сона орденом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Возможно, что дружба политика с Россией сейчас очень пригодится Корее.

"Мы шлем сигнал SOS России и другим странам", - резюмировали эти высказывания ведущие корейские СМИ, выражая надежду, что Корея сможе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дефицит и извлечет урок из кризис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е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у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явилось право на заключ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оглашений к договорам подряда. Такая мера призвана поддержать отрасль в связи с существенным повышением цен на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около 16 тысяч строителей и 10 крупных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нятие дан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реализации намеченных планов по увеличению темпов ввода жилья. Так, в 2019 году сдано 3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2020-ом – 439 тысяч, плановый показатель на 2021 год –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С учетом темп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остигнет показате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более 1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в расчете н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В отсутствие поддержки на фоне роста цен на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стройки могли встать, а сотрудники,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е в этой сфере, – лишиться источника дохода.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оценили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отребуетс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заключ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оглашений, и иск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нашим подряд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епросто работать в условиях роста цен на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ействовать необходимо в интересах строителей и стаб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острове.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обеспечение качествен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жильем, современ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и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о и сохране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стабильности для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этому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объемная работа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а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для застройщик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ов.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подрядчик с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величения стоим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а путем прохо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спертизы.

Есть и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ловия. Так, изменение существенных положений контракта, который заключен до 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нему не исполнен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пределах лимитов бюджет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на срок исполнения контракта и не приводит к увеличению этого срока и (или) цены контракта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Также застройщик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не имеет право изменять проек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 Сейчас наша компания строит четыре жилых дома в Курильске. Мы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этом постановлении и уже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собираем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Нужно подготовить смету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спертизы. Такие шаги дают понимание, что наша влас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а и поддержке строителей, – считает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Алси строй» Денис Юн.

Напомни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ая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по расселению жил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почти 29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5,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о многом т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ной поддержке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о стороны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Более 40 тысяч обращен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инял ЦУ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подвел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старт работе которого дал год назад. За это время площадка стала эффективным канал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жителей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корость первичного ответа на сообщения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удалось сократить с 7 часов до 1 часа 40 минут.

– Работа все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аждого чиновн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людей. Отвечать необходимо быстро и качественно. Бюрократия и ответы для галочки недопустимы. Мы должны вникать в каждое обращение и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пециалисты ЦУРа регулярно дают мне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поступившим сообщениям,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ам, где по какой-то причине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быстро не получается, я готов подключаться лично.

Ведется рейтинг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ведомств 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Он учитывает качество, количество, скорость ответов на сообщ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 органы власти попадают в зеленую, желтую, либо красную зону. С отстающими проводится тщательная работа над ошибками.

– Все ответы сначала приходят в ЦУР,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оценивают их. Откровенные отписк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и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доработку. Если ведомство не успевает д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ответ, в рейтинге оно

маркируется красным,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Максим Камеко.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ложил еженедель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слушивать доклад ЦУР, чтобы держать руку на пульсе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ньше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звучивалась ежемесячно.

Почти 9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вопросов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иходят через Инстаграм. Больше всего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нтересуют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дороги и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медицина и коронавирус,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На днях открытым для обращений жителей стал аккаунт губернатора в Телеграм.

– Если вопрос несложный, и его решение не требу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и, ответ поступает сразу. Если решения пока нет,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даем человеку обратную реакцию и говорим, что обращение взято в работу.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требу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 тогда человека приглашают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на личный прием, – отметила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ЦУР по социальным коммуникациям Ольга Черникова.

По словам сотрудников центра, сред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лидеры по качеству, количеству и скорости ответ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Корсаков. Хорошую оперативност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ы у минздра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Человеческий подход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Команда ЦУРа проявляет внимание и участие к каждому обратившемуся. К примеру, недавно жители Чехова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е погасло освещение.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се починили. Реш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затрагивают широкий круг людей, но и частные проблемы, – рассказала редактор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Дарья Агиенко.

По словам сотрудников, огромную поддержку центру оказыва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здавший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Среди последних примеров специалисты вспомнили случай девушки-сироты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Ей 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квартиру из-за задержки с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К решению вопроса подключилось сахалин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 конца года девушке должны вручить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ы.

Активность проявляют жител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дростки. Показательной стала история 14-летнего Денис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пожаловался на состояние своего двора. Губернатор лично встретился со школьником. В результате – качели покрасили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роезжую часть у домов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Другой школьник из Охи активно писал о загрязнении природы в своем родном районе. ЦУР организовал встречу юного охинц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сле этого появилс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атруль школьников. Ребята обеспечивают инвентарем и транспортом, и они помогают с уборкой мусора.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именно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собирали обращения для сентябрьской прямой ли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Тогда через соцсети и по телефону поступило почти 1,5 тысяч вопросов. На каждый были даны ответ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1000 дворов»

В 2022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 счет бюджета РФ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6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Еще 63 двор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благодаря областно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должить также программу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и охватить не менее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До конца 2021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ат жильем 246 сиро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глав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чественным жильем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я квартир для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о гарантирует сиротам жилье. Ситуацию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должно держать не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но и глава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На сегодня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в этом году 246 квартир сирот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о 151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61 квартира – на стадии оформления, чт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86 процент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воеврем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ч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обратиться мэра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онца года все квартиры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даны.

Отметим,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сиротам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41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кольку потребность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озрос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вышло с инициативой увеличи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на 19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едложения включены в сводный реестр на поправк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1 году.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иняли одно из лучших решений. Не

дожидаясь сроков капремонта,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о дворах. К поиску дефектов подключились волонтеры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в 686 дворах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ельзя снижать планку. Нужно делать простую работу – если требуется, заделать трещины, покрасить лавочки, выровнять ограду. Вместе с тем, необходимо каждый год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 менее 120 двор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а по капремонт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лан капремонта на 2021 год включает 121 двор, работа уже завершилась в 10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благоустроили 24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сделают еще 15.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ернется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благородить 27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а эти це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т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76 млн рублей. Еще 418 млн рублей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 Гла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капремонта – это комфорт и экологичность. Должна учитываться безбарьерная сред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визуаль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зоны отдыха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места для барбекю и работы на улице. Должна быть разработана единая концепция всех элементов среды,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до 25 ноября представят типовые решения и требования п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До 1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конкурсные процедуры и определить подрядчиков. Капремонт развернется в период с 1 мая по 1 ноября 2022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вместе с дворами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Программа капремонт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т синхронизироваться с ремонтом подъездов и входных групп.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увеличиваются субсидии для ч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С 2022 года объ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ч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вырастет с 44,5 млн до 70 млн рублей в год. С помощью субсид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озмещают расходы на зарплату 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педагогов,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и игр.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субсидию получают 6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финансовый год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10 владельцев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позволили во многом решить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 помощью бизнеса. На частные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возводить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и после осуществлять т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и этом государство компенсиру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затраты, и дети будут учиться бесплатно. Такие механизмы с участием бизнеса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 в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бюджета, – поясн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област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разработ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губернатора поддержали.

Отметим, что ежегодная субсидия –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Субъект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озмещают до 700 тысяч рублей.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аренду помещения,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метод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азвивающие игры, материалы для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хозяйственно-бытовые товары.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гранты на созда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3 лет в частны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бъе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определ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числа созданных мест.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 123 400 рублей. С помощью гранта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и, средства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 Спрос на услуги частного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остается высоким. Мы готовы обсуждать с бизнесом мер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всегда открыт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дителям, чьи дети посещают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тоже оказываетс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Для мам и пап компенсация составляет 50 процентов от родительской платы, но не более 1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одного ребенка. Такой помощью пользуются порядка 650 семей –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2019 году, когд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была введ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 частных дошко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сещали 278 детей.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ют 36 учреждений, там учатся 909 ребя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국방부는 11월 11일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측에서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 러시아 측에서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2년 11월 11일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이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한 후 최종 서명에 이르게 됐다.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국방부는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남동구, '소래찬' 김장한마당 큰 호응 속 마무리

민간 후원 포함 100t 김치, 소외계층 1만 가구 이상 전달

인천시 남동구의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와 함께하는 제3회 김장한마당이 지난 13일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개인 참가자 대상 김장 체험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주간 김장 체험 사전 예약을 통해 모두 3650팀이 접수했으며, 행사 당일 택배 수령 인원을 제외한 약 1400팀이 남동구청을 방문했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김장한마당을 통해 김치를 구매했던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구매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7월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남동구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가 사용돼 맛과 위생에서 모두 기대감을 높였다.

구는 주민들의 대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행사 부스를 운영했으며, 참가자들은 드라이브스루 또는 워크스루 방식으로 김장 재료를 수령했다.구는 행사장 입·출구 동선을 분리하고, 곳곳에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같은 날 오후 1시 남동구청 어울림 광장에서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가 열



▲ 사진=남동구

렸다.

참가자들은 메인 행사장과 남동구 소재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를 담갔다.

각 동 행사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별 20명 내외로 참가자를 제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생 단체 회원 등이 김치를 기부했다.

구는 행사를 통해 담긴 김치를 비롯해 각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포함, 모두 약 100t의 김치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1만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자체 예산과 더불어 수급자 세대 수에 따라 각동에 후원금을 배분했으며, 지역 내 사할린 동포와 북한 이탈주민 등은 별도로 지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김장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해주시는 여러 후원자님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남동구 소래찬 김장한마당이 앞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표 김장 축제로 발돋움하도록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인종합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놀이를 놀다

놀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즐거움입니다. 사람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학자(호이징하)도 있을 정도로 놀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놀이가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일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놀이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놀이가 그대로 일이기도 합니다. 놀다의 다른 뜻에는 움직이다, 일하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자놀이의 놀이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손을 빨리 놀린다는 말도 손을 빨리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노는 것도 아이가 움직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는 것은 즐겁게 일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놀이는 연주나 연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는 이에게는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일입니다. 영어에서도 놀다에 해당하는 단어인 'play'가 연극을 의미하거나 연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했겠지요. 우리말에서는 연극적 요소가 강한 복정사자놀이이나 사물놀이 등에 놀다와 관련된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도 연극이나 연주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이고, 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북, 장구, 팽과리, 징으로 이루어진 연주입니다. 원래는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1978년에 악기의 수와 규모를 줄여 공연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가 요즘에는 국악 연주의 대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가지 타악기의 어우러짐은 환상의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많은 악기가 그렇습니다만 타악기는 듣는 사람보다 치는 사람의 몰입도가 깊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배워서 타악의 리듬 속에 스스로를 맡기면 심리적인 고통을 벗어나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물은 혼자서 하는 연주가 아니라는 점도 좋습니다. 다른 합주도 비슷하지만 사물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모든 악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구를 배워서 기본 장단을 익히고, 팽과리, 북, 징을 익힙니다. 그 중 하나 또는 몇 개의 악기를 담당하지만 모든 악기에 익숙한 사람이 함께하는 연주는 조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공감의 깊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공감의 에너지를 크게 합니다. 넷이서도 가능한 연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흥겹습니다. 흥겹다는 말에서 '겹다'라는 말은 '정도나 양이 지나쳐 참거나 견뎌 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절로'라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이 오르면 어깨가 절로 들쭉거리는 겁니다.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절로 추임새가 나옵니다. 물론 흥에도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절로 나오는 흥을 잘 이끌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임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는 어색한 흥을 불러 모아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잘한다, 좋다, 얼수, 얼씨구' 등의 말을 하고 들으면서 신이 더 납니다. 몸속의 신이 솟아납니다. 칭찬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틀린 부분에서 웃음이 납니다. 웃음도 음악이 됩니다. 웃음소리도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지나치게 틀려서 당황해서는 안 되겠지만 웅만한 실수는 흐름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렇게 실수도 흘러가는 겁니다. 실수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과장되게 동작을 하여 보는 이, 하는 이의 공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발림은 비어있는 시간의 공간을 메우기도 하지만 불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손동작이 소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과장된 모습은 감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물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겹섭니다. 흥겹고, 정겹습니다. 몸속에 있는 기운이 펄펄 날아다닙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 1,196만 명으로 세계 8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1위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이 1,196만 명을 기록했으며, 국제여객 수송순위 8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국제여객 수요가 급감(75.7%↓)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행이 자유로운 유럽공항들의 국제여객 순위가 상승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세계 순위 5위(7천만 명)에서 8위(1,200만 명)로 하락했다.

국제여객 순위는 1위 두바이공항(26백만 명), 2위 암스텔담공항(21.8백만 명), 3위 런던히드로공항(20.6백만 명) 순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그간 항공허브 경쟁을 벌여왔던 홍콩 첵랍콕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화물 실적은 276만톤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 홍콩 첵랍콕공항, 2위 중국 푸

둥공항에 이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우리나라 2021년 3분기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분기(572만 명)에 최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909만 명(국제선 92만 명, 국내선 816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선 항공여객과 국제화물(수하물 제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실적의 각각 98.1%(816만명), 120.2%(84만톤) 수준을 보였다.

국제선 여객은 2019년 3분기 대비 96.0% 감소한 상태이나, 2020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저효과로 41.8% 증가한 9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선 여객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3분기 동안 하락추세(7월 293만명→ 8월 270만명→ 9월 250만 명)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3%(내륙

36.1%↑, 제주 9.1%↑) 증가한 816만 명을 기록했으며, 공항별로는 제주(9.9%)·김포(15.6%)·김해(24.5%) 등 대부분 공항이 증가한 반면, 양양(△43.0%)·무안(△59.2%) 등은 감소했다.

항공화물은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에 따른 국제화물 수요 증가와 국내여행 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국내화물 모두 증가해 2020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92만 톤을 기록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 화물기 운항 규제개선, 바이오 의약품 운송 승인 간소화 등 정책지원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방역절차 간소화, 트래블 버블 확대를 통한 점진적 국제노선 재개 등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цы написал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рили свои знания в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диктанте — испыт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флайн-формате, но с учетом действующих ограничений. Уже в пятый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не только студентов, но и тех, кто просто хоче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географии.

В этом году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орядка 100 человек. Организаторы говорят, что для диктанта это небольшой показатель. Огран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ишло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Однако в зале все равно оказалось достаточно желающ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 иде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ое и составляет задания. Участники отмет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вопросы стали сложнее и интереснее.

«Я каждый год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в этом диктанте. В институте закончил именно эту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оэтому проверять свои знания всегда полезно. Я специально никогда не готовлюсь, пользуюсь уже получ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Кстати, были даже моменты в прошлые годы, когда читал задания и узнавал для себя что-то новое. Интересный опыт», — рассказал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Александр Ивельский.

Александр уже стал одним из призеров на брейн-баттле, который провели перед диктантом. На вопросы отвели от 30 секунд до минуты.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чалась дальше.

«Мы рады видеть, что сегодня в зале присутствуют и студенты, и даж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ичем есть наши постоянные участники. Это всегда радует. Все бланки мы сканируем и отправляем в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для проверки», — пояс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уденческого научн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ГУ Егор Лим.

В конц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Результаты испытаний будут известн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추첨, 10만 루블리 지급

러시아 정부가 상금을 두고 코로나 19 접종자만이 추첨에 참가하게 되는 추가 추첨 2회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법규가 11월 14일부로 발효되었다.

2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이 10만 루블리 당첨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가을 초입에 시작된 이 행사는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1천 명의 러시아인이 상금을 받게되는데 추첨 행사 전까지 국내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러시아 시민은 누구나 로또 추첨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 백신의 경우 2차 모두 접종을 마쳐야 한다.

'파블라멘트스카야 가제타(의회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당첨에 대해서는 '고스우슬루기(국가서비스 사이트)'에서

알 수 있으며 통보는 개인 계정을 통해 전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추첨 행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자의 증명서 번호에 따라 추첨 기기로 500명이 이미 선정되어 10만 루블리를 받게 되는데 이 중 사할린 주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укол: для привиты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ведут денежную лотерею

Российский кабмин проводит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озыгрыша денежных призов — в лотере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граждане, привитые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этом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14 ноября. Среди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дважды разыграют п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Акция, которую запустили в начале осени, продлевается до 31 дека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получат тысяча росси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отерее могут все граждане РФ, которые привились от ковида одной из отечественных вакцин до проведения розыгрыша. При этом, если препарат двухкомпонентный,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обе инъекции.

Как пишет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о выигрыше россияне узнают на «Госуслугах»: уведомление поступит в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пользователя. Лотерея для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чалась 1 сентября. По номеру сертификата о прививке генератор случайных чисел уже определил 5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п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ев среди них пока не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6-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